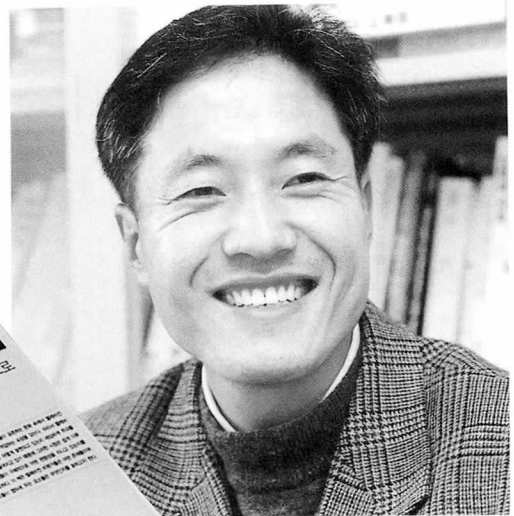


텔레비전을 반성적으로 시청하자

《텔레비전 보기—시청에서 비평으로》 펴낸 정준영씨



정준영씨

책세상/A5변형/186면/4900원

우리 시대의 문화현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꾸준히 연구해온 문화평론가 정준영씨(39, 동덕여대 교양교직학부 교수)가 지난 10여년 동안의 텔레비전 비평작업을 '중간 결산' 하며 《텔레비전 보기—시청에서 비평으로》(책세상)를 펴냈다. 이 책은 주로 특정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텔레비전 비평에서 한걸음 나아가 텔레비전 비평의 기준이 되는 시각과 요소들을 설명한다. 텔레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방송사와 제작자의 본령과 의무도 상기한다. 그리고 텔레비전이라는 매체 자체의 특성도 소개해 비평이 지향하는 바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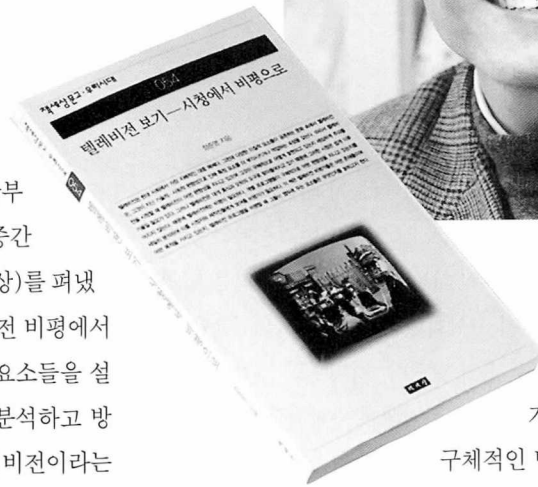
텔레비전은 대중문화의 게이트키퍼

“텔레비전은 모든 대중문화의 게이트키퍼이고 그 문화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반영합니다. 단순한

매개자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여러가지 가치 가운데 특정 부분을 선별하고 강조하는 등 능동적으로 활동합니다. 따라서 텔레비전을 통하지 않으면 대중화되기 어렵죠. 텔레비전은 가장 강력한 매개자며 검열자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으니까요.”

텔레비전과 관계맺지 않으면 대중문화는 주변적인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금은 문화현상과 대중화에 대한 소수 엘리트의 역할이 약화됐고, 주체적인 판단으로 수용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일반인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대중문화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한다. 즉 텔레비전에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 중요성과 가치까지도 의심받는다. 그런데 이는 텔레비전을 통하기만 하면 본질과 상관없이 일정 수준을 보장받게 된다는 뜻이므로 바로 여기에서 비평가들의 역할이 부각된다. 시청자들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무의식적이고 비체계적인 비평을 넘어서 좀더 진지하고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대중문화의 게이트키퍼인 텔레비전의 영향력을 감시하고 거르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교수에 따르면, 텔레비전 비평의 지향점은 텔레비전이 수행하는 역할에 개입하는 것이다. 본래 비평은 “문화가 형상화되는 과정, 문화의 의미가 구체적인 형태로 구성되는 과정에 개입하고자 하는 노력”이고, 비평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그가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텔레비전 비평



가들이 문화를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텔레비전 비평가의 이상적인 역할은 제작자에게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제작자와 시청자 사이에서 시청자를 충동해 제작자에게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게 하거나 없애게 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대한 능동적 개입 필요해

시청자들도 모니터요원이나 옴브즈맨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정부분 제작에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전문적인 텔레비전 비평가들의 활동도 이상적인 역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반 시청자들의 의견은 단순한 참고사항으로 존중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는 시청자들에게 ‘반성적 시청’을 권고한다. 평면적인 시청, 즉 좋고 싫음에 머물지 말고 왜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왜 집중하게 되는지 고찰해 텔레비전이 끼치는 영향력을 가늠하라는 것이다. 물론 이는 다른 대중문화를 접하는 데도 필요한 태도라고 말한다.

“텔레비전은 오락매체, 정보매체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형식은 변하겠지만 존재 자체가 소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의 미래는 밝다고 예견한다. 텔레비전은 특히 소외된 노동자들에게 가장 비중 있는 오락도구로 이용되고 있고,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급격한 사회변동이 선행되지 않는 한 텔레비전은 영속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그가 제시하는 ‘반성적 시청’은 이 지점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 텔레비전의 창창한 미래는 능동적인 대중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차정신기자